

# 볼 것·놀 것·할 것 많아질 때... 세상 돌아가는 안목 키워볼까?

▶ 대학 새내기들이 꼭 읽어야 할 인문·교양서적 3권

**대** 학교 1학년, 세상이 환하게 빛나는 때다. 수능을 뚫고, 입학해 신입생이 됐다. 볼 것 놀 것 할 것이 더 많아진 세상, 그래서 바쁘지만 지양분이 필요하다. 인문교양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인문서에 입문해야 한다. 질주하는 세상의 해답은 전공 서적이거나 토익 교재에만 담겨 있지 않다. 새내기때 읽고 나아가야 한다. 아니면 더더욱 치열해지는 세상속에서 책 읽기는 자동차 면허증 따기보다 어려워진다. 이제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할때다. 정치, 페미니즘, 미학, 철학 등의 분야에서 이슈가 되고, 현재 인터넷 서점에서 잘 팔리는 책을 소개한다.



### ▲유시민 '국가란 무엇인가'

2016년 10월 말부터 나라를 뒤흔든 국정농단은 진정한 국가와 지도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거리를 던졌다. 대학 수확능력시험이 끝나자마자 촛불집회 현장에 쏟아져 나온 지금의 새내기, 즉 고등학생 3학년들도 저마다의 목소리를 힘껏 냈다.

정계 은퇴 뒤 전업 작가로 살고 있는 유시민 전 국민참여당 대표의 '국가란 무엇인가'는 그 목소리에 명분을 실어 줄 책이다. 2011년 출간됐던 책으로 최근 개정판이 나왔는데, 국가는 어떤 자질을 가진 사람이 다스려야 하며, 국가를 올바르게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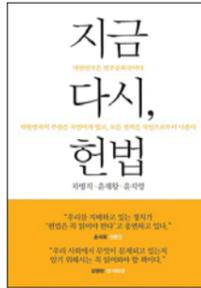
결국 훌륭한 국가, 정의로운 국가에 살고 싶다면 시민 각자가 더 훌륭해져야 한다는 걸 방증한다. 국가의 무능에 한탄하느라 모든 힘을 쓰기보다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 ▲차병직 등 '지금 다시, 헌법'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누구나



유시민 '국가란 무엇인가'



차병직 '지금 다시, 헌법'



록산 게이 '나쁜 페미니스트'

알다시피 헌법 제1조 1항과 2항의 내용이다.

현 대통령에 대한 시민들의 하야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헌법이 새삼 주목 받고 있다. 헌법은 한 국가의 상징이자 실체다. 그 주체이자 구성원인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그것의 실현을 담당하는 권력기관의 설치와 운영을 규정한다.

헌법만 잘 작동하면 국민주권·권력분립·법치주의 등이 보장된 민주공화국 시민으로서 저마다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헌법의 기본권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한다.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지 못할 때 국민은 헌법을 근거로 이에 대한 보장을 요구할 수 있다.

국정농단은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했다. 국가권력은 시민을 통제하려는 속셈이 있다. '지금, 다시 헌법'은 인권이 현실 생활 속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헌법을 통한 시민들의 권리 의식이 무엇보다 선행해야 한다는 걸 깨닫게 한다.

### ▲록산 게이 '나쁜 페미니스트'

페미니즘은 지난해와 올해 대한민국의 사회·문화계를 강타한 주요 이슈다. 이전까지만 해도 페미니즘에 대한 국내 인식은 편향했다.

국립국어원이 최근에서야 페미니스트에 대한 뜻을 '예전에 여자에게 친절한 남자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수정한 것이 예다. 기존 페미니스트의 뜻풀이인 '여자에게 친절한 남자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에 '예전에'를 추가한 것이다.

한국사회는 일상에 만연한 '여성 혐오'를 이제서야 조금씩 인식하게 됐다. 다양하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하는 대학 생활에서 무의식적으로 체득한 여성 혐오는 더 조심해야 한다.

페미니즘이 어렵다? '나쁜 페미니스트'는 대중문화를 통해 우리사회 기저에 깔린 여성 차별을 자연스럽게 짚어낸다. 미국 대중문화 위주지만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성 차별은 한국과 닮아 있다. 강간이 아무렇게나 등장하는 대중문화, 남성이 기준이 되는 사회, 젠더를 연기해야 하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결' 등이 예다.

/뉴시스

## 박형권 시인, '가덕도 탕수구미 시거리 상향' 출간

박형권 시인이 '가덕도 탕수구미 시거리 상향' 시집을 냈다.

'본디 시거리'는 가덕도 사람들이 아광창이 내는 바다의 '빛'을 일컫는 말이지만, 시인은 이를 바다가 전하는 '말'로 풀이한다.

시인은 어류의 생태와 사람의 살림을 등치시켜놓고 교묘하게 맞닿는 점점을 예리하게 포착해낸다.

시편마다 가덕도 어류를 등장시켜 그것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짚어내며 가덕도의 삶을 심해의 바닥까지 통찰한다. 시집에 등장하는 50여 종의 어류는 유소년기를 형성했던 시인의 모습과 겹쳐 읽힌다.

그는 시집에서 가덕도는 "인생 앞에서 누구나 고요히 머리 숙이는 것"(풀무대가 리국-중에서)을 가르쳐주었고, "자기가 자기에게 중독되지 않을 만큼 독을 머금어야 한다는 것"(나무섬 솜뿔-중에서)을 깨닫게 했으며 한 번도 시인을 빈손으로 세상에 내보낸 적이 없다고 표현한다.



작가는 1961년 부산에서 태어나 가덕도에서 유년을 보냈다. 경남대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2006년 '현대시학'에 시 '봄, 봄'이, 2013년 '한국인테레센상'에 장편동화 '베타세쿼이아 숲으로'가 당선됐다.

/정해은 기자

### 한지예술대전 출품작 공모

전주한지문화축제조직위원회(위원장 이남호)는 '제23회 대한민국한지예술대전'의 출품작을 오는 4월 23일까지 공모한다.

전주시와 전주한지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전국한지공예대전 운영위원회와 대한민국한지미술대전 운영위원회가 주관하는 예술대전은 5월 19~21일 열리는 전주한지문화축제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공모는 전국한지공예대전과 대한민국한지미술대전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심사결과는 5월 4일 발표하며, 시상식은 5월 19일 전주한지문화축제 개막식장 특설무대(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열린다. 수상작은 한국전통문화전당과 한지산업지원센터에서 전시된다.

/정해은 기자

## 일본 애니 거장, 오케스트라로 만나자

익산예술의전당, 11일 오후 7시  
'하루키, 미야자키 하야오 만나다'

일본 문화를 쌍끌이 하고 있는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그들의 작품판에는 적잖은 공통점이 있다. 전후(戰後)세대인 두 거장은 갈피를 잡을 수 없던 혼란의 시대에 자신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인생의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는 작품세계를 발전시켜 왔다.

익산예술의전당(소장 김병재)은 오는 11일 오후 7시 두 거장의 작품세계를 풍성한 오케스트라의 사운드로 들려주는 무대 '하루키, 미야자키 하야오를 만나다'를 마련한다.

공연은 두 사람의 작품 분위기와 감성을 '음악'이라는 공통분모 통해 그려낼 예정이다.

첫 무대는 하루키의 문학에서 빠질 수 없는 클래식 음악으로 꾸며진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예술세계와 그의 소설 속에서 언급된 클래식 음악들을 들어보며 흥미로 우면서도 깊이 있는 하루키의 세계로 들

어가 본다.

〈상실의 시대〉, 〈태양잡는 새〉 등 하루키가 소설 속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음악적 장치를 막연히 클로만 느끼던 관객들에게 직접적이면서도 감각적인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무대에선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의 아름다운 색채를 품은 이야기들을 음악으로 느낄 수 있다.

미야자키 하야오의 동반자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작품을 함께 한 작곡가 히사이시 조의 음악들을 중심으로 미야자키 하야오의 인생과 그의 작품세계를 들여다 본다. 〈하울의 움직이는 성〉, 〈원령 공주〉, 〈이웃집 토토로〉 등의 메인 테마곡들이 연주되는 가운데 이 환상적인 콤비의 작품에서 음악이 어떻게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내는지를 살필 수 있다.

공연은 지난 2014년 실내악으로 꾸며진 시즌 1의 매진에 힘입어 지휘자 안두현의 친절한 해설과 코리아람 오케스트라의 연주, 피아니스트 김재원의 협연으로 시즌 2를 선보인다.

\*\*관람료는 VIP석 3만원, R석 2만원, S석 1만원. /정해은 기자

## ▶ 공연 & 전시 ◀

### 갤러리 슝 캔버스 뒤풀어나오기' 테마기획전

미술대학을 갓 졸업한 새내기 윤소라·황조은·형내인·설은화 작가가 봄의 도장을 알린다.

6일부터 28일까지 갤러리 슝(관장 정소영)에서 열리는 '캔버스 뒤풀어나오기' 테마기획전에서 이들은 꽃뿔하고 실패 가득한 에너지를 발산한다.

윤소라(원광대 조형예술디자인대학 졸업)는 〈Intruder〉에서 사람들이 사는 공간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야기들을 입체화된 공간에 담아낸다.

황조은(군산대 예술대학 졸업)은 사람들은 불안한 감정에 노출되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현실을 회피하거나 부정하는 등 자기방어 기제를 보이는데, 자신의 얼굴을 숨김으로써 이를 모면할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 작가는 이 같은 인간의 내약함을 작품(HIDE)에서 동물들의 엉덩이를 의인화해 표현한다.

형내인(전북대 예술대학 졸업)은 〈끝나지 않은 전쟁〉에서 세상의 유일한 분단국가. 우리는 종전이 아니라 정전 중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설은화(원광대 조형예술디자인대학 졸업)는 〈피터팬이 사라진 그 날〉을 선보인다. /정해은 기자



#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적십자회비, 지금 희망을 심어주세요.

- 금융기관
- 가상계좌
- 인터넷
- 전화 (ARS 1577-8179)
- 편의점
- 신용카드 포인트
- QR코드

홈페이지 [www.redcross.or.kr](http://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홍보대사 안재욱